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4/12/15

2014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2013년 작년에는 <7번 방의 선물>(1,280만 명), <설국열차>(933만 명), <관상>(849만 명), <베를린>(717만 명) 등 500만 명 이상 관객을 모은 영화가 8편이나 됐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국영화 누적 관객수가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1억 명을 넘는 등 호황을 이뤘습니다.

2014년 올해는 500만 명 이상 관객 동원작이 <명량>(1,761만 명), <변호인>(1,138만 명), <해적: 바다로 간 산적>(867만 명), <수상한 그녀>(866만 명) 등 4편으로 작년의 절반에 그쳤으나, 그 중 <명량>은 역대 우리나라 영화 흥행 기록을 모두 갱신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갤럽은 2005년부터 매년 말 그 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3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영화배우를, 이후 코미디언/개그맨, 스포츠선수, 대중가수/인기가요, 탤런트 등 ‘2014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4년 10월 29일~11월 25일(4주간)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추출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3명
5. 표본오차: $\pm 2.4\%$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위, <명량> 최민식 - 2위는 <변호인> 송강호
- <명량> <군도: 민란의 시대> 출연 배우 두각
- 최근 몇 년간 상위권에서 여배우 존재감 낮아져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 위, <명량> 최민식 - 2 위는 <변호인> 송강호

최민식이 한국갤럽의 ‘2014년을 빛낸 영화배우’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주간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를 두 명까지 묻은 결과(자유응답), 최민식이 42.3%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최민식이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불리는 ‘이순신’으로 분해 열연한 <명량>은 1,761만 관객을 모아 한국영화 흥행 기록을 모두 갱신했다. 한편 그는 올해 킵 베송 감독의 <루시> 출연으로 할리우드 진출에도 성공해 2003년 <올드보이> 이후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

2위는 **송강호**(22.2%)로, 작년 1위에서 한 단계 물러섰지만 그의 최근작이 작년 12월 18일 개봉해 올해 상반기까지 상영된 <변호인> 한 편이었음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송강호는 작년 8월 <설국열차>('남궁민수' 역), 9월 <관상>('내경' 역)에 이어 12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를 다룬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역으로 한 해 2,000만 관객 동원 배우 기록을 달성했다.

3위는 <명량>과 <표적>에 출연해 2년 연속 천만 관객 동원 배우가 된 **류승룡**(10.5%)이다. 2004년 34세 늦은 나이에 배우 데뷔한 그는 작년 <7번방의 선물>에서 여섯 살 지능을 가진 아빠 '용구' 역으로 열연하며 '명품 조연'에서 '명품 주연' 배우로 새롭게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올해는 영화 출연 외 눈길을 끄는 광고 출연 등으로 친근감을 더하며 작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섰다.

<베를린>과 <더 테러 라이브>의 성공으로 작년 2위까지 올랐던 **하정우**(9.0%)가 올해는 4위를 차지했다. 올해 그는 <명량>과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군도:민란의 시대>로 477만 명 관객을 만나는 데 그쳤으나, 감독 겸 주연으로 나선 <허삼관> 개봉을 앞두고 여전히 '충무로 대세'로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위는 작년 <지.아이.조2>와 <레드: 더 레전드>에 이어 내년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간 국내보다는 할리우드 행보로 더 주목 받고 있는 **이병헌**(4.5%)이다. 최근 그는 협박 사건에 연루돼 소송을 진행하는 등 구설에 올랐지만, 여전히 연기 잘하는 배우로서의 존재감은 컸다. 조만간 <협녀: 칼의 기억>과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내부자들> 등 한국영화 두 편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6위는 군 제대 후 <군도: 민란의 시대>로 돌아온 **강동원**(4.2%), 7위는 **설경구**(3.7%), 8위는 **정우성**(3.6%), 9위는 역시 군 제대 후 첫 영화 <역린>에 출연한 **현빈**(3.3%)이었다.

▶ 2014년을 빛낸 영화배우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올해 대표작
1위	최민식	42.3	〈명량〉 〈루시〉
2위	송강호	22.2	〈변호인〉
3위	류승룡	10.5	〈명량〉 〈표적〉
4위	하정우	9.0	〈군도:민란의 시대〉
5위	이병헌	4.5	〈협녀, 칼의 기억〉 〈내부자들〉(예정)
6위	강동원	4.2	〈군도:민란의 시대〉 〈두근두근 내 인생〉
7위	설경구	3.7	〈나의 독재자〉
8위	정우성	3.6	〈신의 한 수〉 〈마담 뺑덕〉
9위	원 빈	3.3	〈역린〉
10위	김수현	3.2	-

질문)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명량〉 〈군도: 민란의 시대〉 출연 배우 두각

‘2014년을 빛낸 영화배우’ 10위권에는 한국영화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명량〉에 출연한 최민식과 류승룡, 〈군도: 민란의 시대〉에 출연한 하정우와 강동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작년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대중상영화제 신인남우상을 수상한 **김수현**(3.2%)은 올해 출연 영화가 없음에도 10위에 올랐다.

그 외 전지현(2.8%), 장동건(2.7%), 손예진(2.6%), 이정재(2.5%), 김윤석(2.3%), 심은경(2.3%), 최민수(2.1%), 하지원(1.6%), 황정민(1.5%), 김혜수(1.4%)가 20위권에 들었다.

▶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 최근 8년간 추이 (%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전도연(49.7)	송강호(13.1)	이병헌(20.1)	원 빈(30.7)
2위	송강호(16.5)	손예진(11.3)	장동건(17.9)	장동건(14.4)
3위	배용준 (6.4)	김혜수 (7.4)	설경구(17.5)	강동원(11.6)
4위	안성기 (6.4)	전도연 (7.3)	하지원(14.3)	이병헌 (6.4)
5위	설경구 (5.0)	장동건 (7.3)	정지훈 (8.3)	송강호 (5.6)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위	원 빈(11.3)	이병헌(37.6)	송강호(22.5)	최민식(42.3)
2위	박해일 (9.5)	송중기(15.0)	하정우(18.9)	송강호(22.2)
3위	장동건 (8.8)	김혜수 (7.6)	이병헌(18.0)	류승룡(10.5)
4위	김하늘 (8.2)	장동건 (7.4)	류승룡(10.1)	하정우 (9.0)
5위	공 유 (5.8)	하정우 (6.4)	설경구 (7.4)	이병헌 (4.5)

최근 몇 년간 상위권에서 여배우 존재감 낮아져

최근 몇 년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상위권에서는 여배우 존재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07년에는 전도연이 49.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1위에 올랐고 2008년에는 손예진(2위), 김혜수(3위), 전도연(4위)이 상위권에서 각축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여배우 순위 최고 기록은 2009년 하지원(4위), 2010년 김혜수(7위), 2011년 김하늘(4위), 2012년 김혜수(3위), 2013년 김혜수(7위) 등에 그쳤고 2014년에는 10위권에 여배우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 2014년을 빛낸 영화배우 - 성/연령별 (%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표본수 (명)	(1위) 최민식	(2위) 송강호	(3위) 류승룡	(4위) 하정우	(5위) 이병헌	(6위) 강동원	(7위) 설경구	(8위) 정우성	(9위) 현빈	(10위) 김수현
전체	1,703	42.3	22.2	10.5	9.0	4.5	4.2	3.7	3.6	3.3	3.2
성 남	848	45	24	10	8	5	3	4	4	3	3
별 여	855	40	20	11	10	4	5	4	4	4	4
연 13~18세	149	29	14	9	10	3	5	5	5	7	4
령 19~29세	276	41	20	<u>16</u>	10	6	5	3	6	5	4
별 30대	301	<u>50</u>	21	10	12	4	4	2	4	4	4
40대	338	<u>47</u>	<u>28</u>	13	10	4	6	5	2	3	2
50대	306	44	24	9	7	6	3	5	5	2	3
60세이상	334	36	22	6	6	3	2	2	1	1	3
남성 13~18세	78	32	13	10	11	4	3	1	6	4	3
19~29세	145	44	23	13	10	8	6	3	4	7	4
30대	154	<u>55</u>	24	10	11	4	1	4	5	1	4
40대	172	<u>51</u>	<u>32</u>	12	10	3	4	4	2	2	1
50대	154	45	24	10	6	5	1	6	5	2	2
60세이상	146	36	22	6	3	4	3	3	1	1	3
여성 13~18세	72	25	14	8	9	3	7	8	5	<u>11</u>	<u>6</u>
19~29세	131	37	17	<u>19</u>	10	3	5	3	7	4	4
30대	147	45	18	11	13	4	7	1	3	7	4
40대	166	44	24	15	10	4	7	6	2	4	3
50대	152	43	23	7	9	7	5	5	5	3	5
60세이상	188	36	21	5	7	3	1	2	2	-	3

질문)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